

영광교육청, 옥당골 교육과정 아카데미 성황리 진행 중

4월·10월 매주 목요일에 4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

현장 수업에 즉시 투입가능한 실천 프로그램 운영

영광교육지원청은 통합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실천적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2022. 1학기 옥당골 교육과정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옥당골 교육과정 아카데미’는 4월과 10월 매주 목요일에 4주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년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장 수업에 즉시 투입가능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교사들의 큰 호응과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특별히 올해는 현장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수를 개설하였다.

지난 7일에는, 초등 전담체육교육연구

회 교사들을 강사(도곡중앙초 교사 손승용, 빛누리초 교사 김명은)로 관내 교사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놀이체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활동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보다 다양한 놀이 방식의 체육활동을 교사들이 직접 활동해 보며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주인 14일에는 ‘핵심역량을 키우는 수업 놀이’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학생들과 학급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을 블로그로 매일 기록하고 있는 나승빈(광주 진남초 교사) 강사는, 수업의 의미(필요)를 알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하도록 좋은 수업을

지속해 가는 노하우를 함께 나누어,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큰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옥당골 교육과정 아카데미는 수업의 방법적인 면들을 배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연수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든 과정에 다 참여했다”며 “이번에 실시한 놀이 연수를 통해 수업과 놀이, 아이들의 발달과 놀이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되어 학교에 돌아가면 바로 교육과정과 수업에 녹여 실천해야겠다”고 말했다.

영광지역 유·초등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아쉽게 시작한 옥당골 교육과정 아카데미는 4월 28일(목)까지 ‘클래식을 알면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클래식 음악 감상)’, ‘행복한 교실, 성장하는 아이들(학급경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영광교육지원청 김준근 교육장은 “수업이



변해야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이 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지속될 옥당골 교육과정 아카데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역량이 함양되고 수업 혁신의 바람이 이는 영광교육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교사들을 응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교육청,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행사 진행

무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고 아픔을 공감하는 추모 행사를 가졌다.

무안교육지원청은 4월15일 10시 모든 직원들이 희생된 304위 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잊지 않겠다는 그날의 다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묵념과 함께 노란 리본 달기 행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무안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무안교육지원청은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주

간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 기간’을 운영한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계기교육을 진행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추모행사를 진행하여 학생들 사이에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관 교육장은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안전, 인권, 인간존중 가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을 아끼지 않



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교육청, 2021 섬드리 학부모 연합회 총회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임원 40여명 대상

신안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임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제3기 섬드리 학부모 연합회 총회를 실시했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마련된 이번 총회에서는 섬드리 학부모 연합회 규정 개정 및 제3기 임원 선출, 학부모 연합회 운영 및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안내 등 학부모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날 학부모 연합회 구성은 임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문영미(보성초 학부모회장) 강사를 초청하여 ‘슬기로운 학부모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자율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3기 섬드리 학부모 연합회 회장으로 당선된 000은 “신안교육 발전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학부모로서 재능기부·자원봉사 등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 참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아 교육지원과장은 “학부모는 학교교육의 든든하고 든든한 파트너로 건설적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당부한다”며, “우리청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 교직원-학부모 다모임, 학부모 연합회 협의회, 권역별 학부모 동아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순천대,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주관대학 선정

‘취업-후진학’ 인재 양성 프로그램·스마트팩토리혁신학과 신설

순천대학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2022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오는 9월부터 총 2년간 ‘스마트팩토리혁신학과(학사과정)’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전국 17개 대학이 ‘2022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규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었으

며, 순천대는 탄소중립 분야 ‘스마트팩토리 혁신학과(학사과정)’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순천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고분자·화학·화학공학(석사과정)에 이어 학사과정을 추가 운영하게 되었으며, 향후 중기부로부터 계약학과 운영비와 참여 학생 등록금 지원 등을 지원받는다.

선정과 관련하여 순천대 산학협력단 허재선 단장은 “탄소중립 분야 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인 역량을 높이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데 기본

적인 목적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의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산업계 기반의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오는 6월까지 스마트팩토리혁신학과 교육과정 설계와 신입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끝내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정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8월에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